

경북지역 동굴의 관광적 특성

The Character of Tourism Cave in Kyongbuk

유영준²⁾

국문초록

자연광물자원의 채광으로 조성되거나 자연적으로 생겨난 동굴은 사람들이 평소에 경험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 있는 동굴의 수는 260 개소에 달한다. 그 중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굴이 12개소, 지방기념물로 지정된 동굴이 29개소이며, 나머지 219개소의 동굴은 미지정 상태로 남아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경북지역을 사례로 하여 동굴의 관광적 특성을 살펴 보았다. 경북지역에는 천연기념물 1개소, 지방기념물 2개소, 특수동굴 2개소, 기타 동굴 13개소 등 18개소의 동굴이 분포하고 있다. 18개소의 동굴 중 개방 동굴은 울진에 있는 성류굴이 유일하며, 동굴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문경에 절반에 해당하는 동굴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경이 다른 지역과 달리 석회암과 무연탄이 많이 분포하여 예전부터 시멘트공장과 연탄공장이 발달한 것에서 그 연유를 찾을 수 있다. 봉화에 4개소가 있으며, 울진에 2개소, 경주, 영주, 안동 등에 각각 1개소씩 분포하고 있다.

I. 머리말

동굴은 독특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고, 오랜 세월동안 자연적으로 조성되거나 굴착 등으로 인한 특이한 경관을 지니고 있으며, 햇빛이 들지 않고 기괴한 형상의 바위가 있는 등 신비감을 주고 있다. 이런 동굴은 위급시에는 피난처로 이용되기도 하고, 식품 등의 보관창고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

자연광물자원의 채광으로 조성되거나 자연적으로 생겨난 동굴은 사람들이 평소에 경험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

2) 경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초빙교수

다.

국내에서 행해진 동굴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1996년 현재까지 지형학 및 지질학 관련 연구가 가장 많이 행해졌으며, 관광과 관련한 연구는 축적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가와 레저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짐에 따라 동굴이 관광명소로 자리잡게 되자 관광자원으로서의 동굴을 인식하여 관광자원 및 관광지로서의 동굴, 교통 특성, 상업적 특성 등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행해졌지만(홍시환·유영준·홍충렬, 1997), 개별 동굴의 관광적 특성을 조사한 연구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관광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동굴 중 경북지역에 분포한 동굴의 관광적 특성을 밝히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우리 나라 동굴의 현황

현재 우리 나라에 있는 동굴의 수는 260 개소에 달한다. 그 중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굴이 12개소, 지방기념물로 지정된 동굴이 29개소이며, 나머지 219개소의 동굴은 미지정 상태로 남아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동굴의 반 이상인 54.6%(142개소)가 강원도에 분포하고 있다.

표 4 우리 나라 동굴의 지역별 분포

단위 : 개소, %

지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수	3	142	55	9	3	1	18	1	28	260
비중	1.1	54.6	21.1	3.5	1.1	0.4	6.9	0.4	10.8	100.0

그 뒤를 이어 충북에 21.1%(55개소), 제주에 10.8%(28개소)가 분포하고 있고, 경북지역에는 17개소가 분포하여 전체 동굴의 6.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러 동굴 중 문화재로 지정된 동굴들에 대해 살펴보아도 역시 강원도에 분포한 동굴들이 가장 많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12개의 동굴 중 5개소가 강원도에 분포하고 있다.

표 5 동굴의 문화재 지정 현황

천연기념물				지방기념물			
지역	동굴명	공개	소유자	지역	동굴명	공개	소유자
강원	관음동굴	×	국유, 사유	강원	용담동굴	×	국유
	환선동굴	○	국유, 사유		연하동굴	×	사유
	고씨동굴	○	국유		대야동굴	×	국유, 사유
	초당동굴	×	군유, 사유		화암동굴	○	군유
	백룡동굴	×	국유		비룡동굴	×	국유
충북	고수동굴	○	사유		동대굴	×	사유
	온달동굴	○	국유		서대굴	×	국유
	노동동굴	○	사유		옥계굴	×	국유
전북	천호동굴	×	국유, 사유		비선굴	×	사유
경북	성류굴	○	군유		용연동굴	○	국유
제주	만장굴	○	국유		저승굴	×	국유
	금녕굴	×	사유		활기굴	×	국유
	협재굴	○	사유		월둔굴	×	사유
	소천굴	×	국유, 사유		충북 천동굴	○	사유
	빌레못굴	×	국유, 사유		전북 마산동굴	×	사유
				전남 아천산굴	×	사유	
			경북	모산굴	×	사유	
				미림굴	×	사유	
			경남	베티동굴	×	국유	

그리고 충북에 3개소, 제주도에 3개소가 각각 분포하고, 경북과 전북에는 각각 1개소씩 분포하고 있다. 그 중에서 8개소가 공개되어 관광동굴로 활용되고 있다. 공개된 동굴 중 충북 단양의 고수동굴과 노동동굴을 제외한 다른 동굴들은 모두 국유나 공유여서 지방세수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지방기념물로 지정된 동굴 19개소 중 강원도에 13개소가, 경북에 2개소가 분포하며, 충북, 전북, 전남, 경남에는 각각 1개소씩 분포하고 있다. 공개된 동굴은 천연기념물보다 적어 3개소뿐이며, 지방기념물 동굴이 있는 지역에서 역시 강원도의 비중이 가장 높고 경북에도 2개소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Ⅲ. 경북지역 동굴의 현황

경북지역에 분포한 동굴 18개소를 표 3과 같이 천연기념물, 지방기념물, 특수동굴, 기타 동굴로 구분할 수 있다. 경북지역에는 천연기념물 1개소, 지방기념물 2개소, 특수동굴 2개소, 기타 동굴 13개소 등의 동굴이 분포한다.

이들 18개소의 동굴 중 개방동굴은 울진에 있는 성류굴이 유일하며, 동굴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문경에 절반에 해당하는 동굴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문경이 다른 지역과 달리 석회암과 무연탄이 많이 분포하여 예전부터 시멘트공장과 연탄공장이 발달한 것에서 그 연유를 찾을 수 있다. 봉화에 4개소가 있으며, 울진에 2개소, 경주, 영주, 안동 등에 각각 1개소씩 분포하고 있다. 그 중 경주시 감포에 있는 감포용굴은 문무왕과 관련된 전설을 갖고 있어 관심을 갖게 되는 동굴이다.

경북지역에 분포하는 동굴의 관광적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표 6 경북지역 동굴의 현황

구 분	동굴 이름	분 포 지 역	공개
천연기념물	성 류 굴	울진군 금남면 구산리	○
지방기념물	모 산 굴	문경군 가은면 성저리	×
	미 림 굴	안동군 북후면 석탑리	×
특수 동굴	감포용굴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
	회 동 굴	봉화군 재산면 동면 2리	×
기타 동굴	궁 골 굴	문경군 문경읍 시음리	×
	용 천 굴	울진군 평해읍 오곡리	×
	굴 곡 굴	문경군 산북면 석봉리	×
	중 리 굴	영주시 부석면 남대리	×
	부곡숫굴	문경군 호계읍 부곡리	×
	부곡암굴	문경군 호계읍 부곡리	×
	우무실굴	문경군 문경읍 마원리	×
	중 골 굴	문경군	×
	지 곡 굴	문경군 문경읍 지곡리	×
	탄곡동굴	봉화군 송면 동면리	×
	평천동굴	봉화군 소천면 대현 1리	×
	황토기굴	문경군 호계면 오암리	×
	회곡동굴	봉화군 재산면 동면리	×

IV. 경북지역 동굴의 관광적 특성

1. 성류굴

울진의 성류굴은 크고 작은 광장들로 연결되어 있는 직선형이며 수평적인 석회 동굴이다.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 대부분의 석회동굴은 기복이 심하거나 꼬불꼬불한 곡선형 또는 계단적인 다층구조가 많다. 그러나 곧바로 넓은 광장이 직선적으

로 연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굴의 바닥 경사도 단조롭고 수평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성류굴의 특징이다.

이 밖에도 성류굴은 천정이 높아 그 생성연대가 오래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옥피천(玉避川)의 냇물이 동굴 속으로 밀려들어와 진동굴성 생물의 생태환경을 해치고 있는 것도 특징의 하나라고 하겠다. 따라서 동굴 내부는 항상 지나칠 정도로 다습한 환경을 이루고 있으며, 오염된 옥피천 냇물에 의하여 수질이 오염되고 있다. 그리고 화려하고도 대규모의 2차 생성물 즉, 동굴퇴적물들이 성장하고 있다.

2. 모산굴

문경군 가은면 성저리에 있는 석회동굴로 해발 190m에 위치하며 군 소유의 비공개동굴로, 1979년 12월 18일 경북 지방기념물 제 27호로 지정되었다. 본 동굴은 부락뒤 야산의 함몰구 밑에서 V자형으로 전개되며 전장 이 약 200m이고 옛부터 수도장과 정성터로 많은 출입이 있었던 관계로 오손이 심한 편이고 상징적인 거대석주와 동굴 벽에 절각구열(節刻龜裂)이 인상적일뿐, 별다른 종유석군의 발달은 없다. 동굴 벽 내부에 지하수류(地下水流)가 계속 흐르고 있으며 토양, 전석, 기타 유기질 퇴적층이 많아 동물상이 풍부하다.

30m 부근부터의 신선하고 다양한 종유석군, 석순, 석주, 특이절묘(特異絶妙)한 석(石), 석화류(石花類), 위와 밑으로의 곡석류(曲石類), 거대한 Rim-pool 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다른 동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귀중한 것이다.

3. 감포용굴

용굴(龍窟)은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거마장에 있는 해식동굴로, 읍에서 해변을

따라 도보로 20분 거리, 부근에는 273m의 방파제가 있어 운치 있기도 한 이 바닷가 밑에 있다.

일명 '용궁바위'라는 커다란 바위와 험준한 바다 절벽 밑에 꿰뚫린 이 용굴에는 틀림없이 육지의 용이 아닌 바다의 용왕님이 살고 계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동굴이다

높이 3m, 넓이 4m의 이 동굴 속을 어름어름 기어 들어가면 뒷전에는 밀어닥치는 거센 동해의 파도가 사정없이 아우성 친다. 누구 하나가 뒤끝에서 노도와 같은 파도에 휘말려 사라지는 양 온 몸이 오싹거린다.

동굴의 길이는 약 50m, 동굴 속 천장의 높이는 6m이다.

용왕님이 도사리고 앉아 있던(?) 그 자리에는 그 누구도 어렵다는 듯 들어서려 하지 않는다. 겨우 동굴 입구에서만 영금영금 어물거리는 대원들의 모습이 가소롭기만 하다.

파도의 굳센 힘이 이토록 커다란 바위 절벽을 타고 들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저 자연의 신비로움과 조물주의 절대적인 능력에 감탄할 뿐이다.

바위벽에는 가막조개, 꾀등이들이 뭉쳐 있기도 하고 혹은 붙어있기도 하다

4. 굴굴굴

문경군 산북면 석봉리 산 101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김종호씨의 사유지에 있다. 석회동굴로서 높이 3m, 폭이 5m, 전장이 250m에 달하는 동굴로서 여러 갈래의 지굴로 형성되어진 동굴이다. 본 굴의 길이는 118m 이고, 1번 지굴의 경우 약 145m, 2번 지굴의 경우 약 40m 정도이며, 이 곳에 약 70m에 달하는 지굴이 또다시 계속하는 굴로서 동굴미지형의 발달이 미약하고 지하수가 흐르고 있다. 동굴 생물은 박쥐가 서식하고 있으며, 중유석이 있고 굴 내부에 거북형 바위가 있다.

동굴 54호

이 동굴은 지산면과 산북면 사이의 도로상에서 5km 떨어진 배나무산의 해발 630m에 자리잡고 있는데 현재 방치되고 있다.

임진왜란 때 고상민(풍기군수)이 피난했다고 전해지며, 그 옛날은 천지개벽 당시에 동쪽 1km 지점에 배를 묶어 놓았던 쇠말뚝이 있다 하여 '배나무산'이라고 한다.

5. 궁골굴

문경군 관음리 산 661 - 1에 소재하는 석회동굴로서 높이 1.2m이고, 폭이 2m이며 전장이 140.9m이다.

이런기(李鍊棋)의 소유지에 있으며 관음리에서 2.4km 떨어진 포함산 중턱의 750m 지점에 자리하고 있다.

입구에서 조금 들어서면 조그마한 광장이 나타나고 있으며, 본굴과 지굴로 갈라지는 권총 모양의 형태를 한 동굴로서 동굴미지형으로는 종유석이 있으며 약 50수 정도의 박쥐가 서식하고 있다.

조선시대 말에 의병들의 은신처가 되기도 하였다는 이 동굴은 다른 석회동굴에 비해 비교적 단순하다.

6. 부곡(部曲) 솟굴

문경군 호계면 부곡리 산 4번지에 있는 높이 2m, 폭 8.4m, 길이 59.6m의 석회동굴로 사유이며 굴 내부경관은 보잘 것 없고 박쥐만 서식한다.

여름에는 주민들이 더위를 피한 휴식처로 사용하며,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다.

7. 용천굴

울진군 평해읍 오곡리 30번지에 위치한 석회동굴로서 높이가 3m, 폭이 9m이고, 전장은 탐사된 연장만으로는 450m인데 실제로는 이보다 더 긴 동굴이다.

입구에서 100m 정도 들어가면 점점 넓어졌다 점차로 줄어드는 수평동굴로 평해초등학교에서 700m 쯤 떨어진 사유지에 위치한다.

동굴미지형은 전형적인 석회동굴에서 볼 수 있는 종유석, 석순, 석주 등이 있으며 지하수가 흐르고 동굴생물 역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굴의 내부 및 외부를 전혀 훼손되지 않은 원형상태로 보존되어 있으며 전혀 오염되지 않은 상태이다.

굴 입구에서 70m는 종유석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나 450m 내부에는 흰색 종유석이 훼손,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있고, 생성연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습도 및 온도가 높고 굴 내부에 동물 뼈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동굴에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456m 지점에 폭포가 있다고 하며, 전설이나 유래는 알 수 없지만 노인들의 구전에 의하면 출입구에 샘물이 솟아 나오므로 '용천굴(龍泉窟)'이라 하였다 한다.

8. 평천동굴(平川洞窟)

봉화군 소천면 대현 1리 산 52번지에 소재한 석회동굴로서 높이가 3.5m, 폭이 3m, 전장이 500m에 달한다.

봉화군청의 소유지에 자리잡고 있는 이 동굴은 평천에서 대현 간의 도로상에서 200m 떨어진 연화산 중턱의 해발 700m 지점에 자리잡고 있는데 동굴 내부에는 지하수가 흐르고 박쥐가 서식하고 있다.

입구에서 100m 지점까지 점차 넓어져 폭이 6m에 달했다가 점차 좁아져서 다시 8m에 달했다가 다시 쌍갈래로 나뉘어지는 낙타봉 모양의 동굴로서 동굴 내부는 원형 보존이 되어 있으나 입구 주변은 심한 훼손이 되었으며 주변이 매우 협소한 지역이라 동굴까지는 통로가 개설되어 교통이 편리하며 인근에 봉화 광업소가 있다.

전설에 의하면 동굴에서 용이 나와서 동굴 건너편에 있는 송아지를 잡아먹었다는 것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9. 황토기굴(黃土器窟)

문경군 호계면 오암리 산 5번지에 소재한 석회동굴로서 안윤화씨 소유의 땅에 자리하고 있다. 조정산 중턱의 해발 51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장 가까운 마을의 거리를 2km가 된다.

굴의 형태는 입구에서 약 30m 들어가면 커다란 광장이 나오고 여기서 더 들어가면 두 갈래로 갈리는 굴이다. 종유석이 있으며 박쥐가 서식하고 있다. 또한 굴 안쪽에 비단형의 바위가 있는데 높이가 5m, 둘레가 3m나 된다.

보존 상태는 관리 방치되어 있고 전해오는 전설에 의하면 옛날 저녁에 갑자기 흰 구름이 끼더니 용이 붉은 빛을 뿜으면서 하늘을 날아갔다고 전해지며, 또한 한국전쟁 당시에 주민들의 피난 은신처가 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10. 희곡동굴

봉화군 재산면 동면리 39번지에 소재한 동굴로서 석회동굴이다. 높이가 3.2m, 폭이 5.4m, 전장이 4km인 비교적 길이가 긴 동굴로서 입구에서부터 점차로 커졌다가 점차 줄어서 3분의 2 지점에 이르러서 또 다시 7m로 커졌다가 다시 줄어들

어 끝이 낮 모양으로 휘어진 동굴이다.

석회동굴의 전형적 특징은 별로 보이지 않고 다만 지하수와 박쥐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동면(東面) 2리에서 약 5km 떨어진 회곡산의 해발 800m 지점에 위치하며 자연 상태로 보존되어 있으나 내부의 상태가 불결하여 경쾌한 동굴이 되지 못한다.

V. 맺음말

여가 및 레저에 대한 의식구조의 변화와 가족 중심의 여가활동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자연학습장으로서, 지구과학 전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동굴이 이동을 전제로 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관광 대상지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북지역을 사례지역으로 하여 동굴의 관광적 특성을 살펴 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북지역에는 천연기념물 1개소, 지방기념물 2개소, 특수동굴 2개소, 기타 동굴 13개소 등 18개소의 동굴이 분포하고 있다. 18개소의 동굴 중 개방동굴은 울진에 있는 성류굴이 유일하며, 동굴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문경에 절반에 해당하는 동굴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경이 다른 지역과 달리 석회암과 무연탄이 많이 분포하여 예전부터 시멘트공장과 연탄공장이 발달한 것에서 그 연유를 찾을 수 있다. 봉화에 4개소가 있으며, 울진에 2개소, 경주, 영주, 안동 등에 각각 1개소씩 분포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병문, 1986, “한국 관광자원의 유형별 분포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변대준, 1992, “성류굴 주변지역의 환경 실태,” 동굴, 30, 34~45.
- 울진군, 1992, 성류굴의 환경 및 안전진단조사 연구보고서.
- 유영준, 1997, “동정굴의 관광지 개발 타당성 연구,” 동굴, 48, 23~34.
- 유영준, 1997, “동굴의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 동굴, 49, 31~43.
- 유영준, 1998, “울진 성류굴의 관광적 특성,” 동굴, 53, 15~24.
- 홍시환, 1978, “동굴의 이용에 관한 연구,” 동굴, 2(3), 17~35.
- 홍시환·변대준, 1995, “성류굴의 안전진단과 환경보전,” 동굴, 제42호, 56~67.
- 홍시환·유영준·홍충렬, 1997, “동굴의 국내 연구 동향,” 동굴, 49, 3~30
- 홍충렬, 1995, “관광지로서의 천곡동굴 연구,” 동굴, 제29호, 55~70.
- 홍현철, 1992, “성류굴의 특성과 분포상에 관한 연구,” 동굴, 제30호, 13~24.
- 김원인, 1995, 관광학원론, 학문사 : 서울.
- 이근, 1996, 신관광자원론, 형설출판사 : 서울.
- 조현호, 1998, 관광학개론, 대왕사 : 서울.
- 홍시환, 1990, 한국동굴대관, 삼주출판사 : 서울.